

사설

만화 통한 포교영역 확대

불교만화 연구소에서 격월간 만화 포교지 '불교만화 이야기'를 7월 1일 창간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던 불교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적지 않은 활력을 보낼 것이라 기대감을 갖는다.

만화는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전하면서 꿈과 상상의 세계를 한껏 부풀려 줄 수 있는 대중예술로 신세대들을 불교 가까이 불러들이는데 이만한 유인물도 드물 것이다. 여기에 장르 파괴적 애니메이션의 세계까지 발전시킨다면 신세대 포교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구축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 만화의 위력은 이미 입증되어 있다. 그리고 출판 가운데 만화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만화 발전가능성은 크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절의 만화독서는 내용의

체화(體化)가 빠르고 그 영향이 평생 좌우한다. 어려서부터 불교적 심성을 심어 주는데 이만한 것도 없어 보인다.

또한 불교는 종교·문화·문학적 만화소재의 보고다. 대부분 대화체로 전개되는 수많은 경전 속에도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고 긴 역사로 하여 축적된 선사, 큰스님들의 설화 역사 삶과 이야기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거듭 말해 불교야말로 만화 소재의 엄청난 광맥인 것이다.

불교 철학과 문화가 지니고 있는 세계성은 한국 불교만화가 앞으로 세계를 겨냥 할 수도 있고 해외포교에도 일익을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만화를 통한 불교포교가 이제 첫 삽을 뜬 셈인데, 불자를 중심한 교계의 폭넓은 관심과 후원이 이를 잘 키워 낼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등 달기' 지속적 운동으로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고 생명나눔실천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교구신도회가 공동주관하는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래는 초파일 행사의 일환이지만 불교계 내외의 호응이 의외로 좋아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한다. 단순하게 등 달기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연등을 달아 모금된 돈을 불우한 이웃에게 회향하여 기쁨과 희망을 퍼부어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몇몇 한 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등이란 원래 밝음을 상징한다. 인간들의 마비된 이성을 치료하여 밝고 건전한 삶을 유도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화한 것이 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등은 어둠과 지혜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무명을 밝혀주는 것이며,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자의 의미도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 난타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해 소박한 등을 밝혀 세상의 어둠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하여 이를 더없이 소중한 행위라 말했다.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밝은 세상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에 나설 때 가능해진다는 가르침이다. 대승불교에서 등을 희망과 구원의 상징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은 단순히 일회성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제자됨을 확인하는 운동이면서 한 시대와 공간을 함께 하고 있는 공업종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밝은 세상 만들기 동참하는 일이기 꾸준해 계속하고,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설립

8월내 교육부에 인가신청, 내년 신입생 모집

중앙승가대학교에 대학원이 설립된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등 학교 관계자들은 17일 총무원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대학원을 설립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금명간 대학원 설립 실무추진한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에 설립되는 대학원은 현재 중앙승가대에 설치돼 있는 불교·역경·포교·사회복지 등 학부와 정 4개 학과의 석사과정으로, 40명 정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원 건물은 본관의 일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중앙승가대는 우선 '대학원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학원 정관 및 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8월 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설립인

가를 신청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방침이다. 최근 겸임교수 4명에 대한 총원직임이 막바지에 이르는 등 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수 정원 확보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중앙승가대는 한달여 전부터 승가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원 설립에 따른 제반 현안을 준비해왔다.

중앙승가대 대학원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승가교육 및 승가 전문

인력 양성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은해사 승가대학원과 학림, 동국대 대학원뿐이었던 대학원 성격의 종단 전문교육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이들 전문교육기관과는 달리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인하는 승가전문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

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스님들의 경우, 대학원이 없어 부득이 동국대나 원광대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하는 불편함도 덜게 됐다.

승가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승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한 현실에 비해,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종석스님은 "이번 일반대학원 설립은 종단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차후 일반인들을 위한 특수대학원도 설립해 명실상부한 종단 교육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ews.com



◇한국불교전통문화체험 사업단장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20일 한국관광공사에서 19개국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지사 템플스테이 참가대사 인증서 수여 행사를 가졌다.

템플스테이 국가홍보대사 역할

외국 유력매체를 잇달아 홍보... "월드컵후도 계속"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인 템플스테이(Temple stay)가 한국을 외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17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월드컵 열기가 갈수록 달아오르면서 미국 CNN방송 등 세계 각국의 유력 방송, 신문 매체들이 템플스테이의 매력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템플스테이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은 500여명, 양보

다는 질 위주로 진행이 되어 참가자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해외홍보 효과는 톡톡히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템플스테이를 다룬 외국 언론은 미국 CNN 방송과 뉴욕 타임스, 영국 BBC방송, 일본 NHK 방송과 아사히, 요리우리신문, 스페인 국영TV, 라디오프랑스 등 20여개, CNN방송의 경우 지난 7일 오전 2분 40초에 걸쳐 새벽예능, 참선, 다도, 연등만들기, 탑돌이 등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월드컵 이후에도 템플스테이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

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템플스테이가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불교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공동대표의장 정대스님 종교지도자협의회 총회

(사)종교지도자협의회는 12일 총회에서 공동대표 의장이 사장에 정대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운영위원장은 총무원 사회부장 양상스님이 선출되어 실질적인 사업과 사무를 담당한다.

김원우 기자

불교대학 대표자협 창립

해동·동산 등 20여 교양대도 '불교교육단체련' 발족

신도 양성의 산실인 불교(교양)대학이 조계종 소속과 그밖의 종단 및 단체 소속으로 각각 나뉘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신도 교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5월 9일 43개 불교대학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하는 한편 20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이 불교대학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조계종 불교대학 대표자 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강원 불지수다라불교대학 학장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선출했다(관련 인터뷰 4면).

포교원은 이어 조계사 대응전에서 포교원장 도영스님 등 불교대학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전문교육 고분식을 갖고, 43개 불교대학에 대한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증을 전달했다.

한편 조계종 인가를 받지 않은 불교교양대학과 태고종, 천태종 등 다른 종단의 20여 불교교양대학들도 20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를 발족시켰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는 해동불교대학 학장 대은스님과 한국

불교교양원 이사장 한정섭 박사,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법사를 공동회장으로 선출하고 불교교양대학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신도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재일 공동회장은 "전국 200여 불교교양대학들은 조계종이 요구하는 인적, 물질 토대와는 달리, 다양한 포교 및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종파를 초월해 새로운 불교 신도를 양성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갖춘 불교교양대학 협의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필 : 김병규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필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해탈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89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이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미륵대불 금강도덕법립 성탄절에 즈음하여

억 조창생들이 기다리고 기다려 왔던 미륵부처님 용화세상이 중앙무기오십토운(中央戊己五十土運)으로 지구촌의 중앙인 한반도에 돌아오니, 세계 인류들이 몰려 와서 월드컵의 축제를 벌이고, 미륵부처님의 천지인 삼법이 이루어지는 이인횡삼십이월록(二人橫三十二月錄)이라, 인천(仁川)과 부천(富川)의 중간이 되는 송도(松島)에 용화세운(龍華世運)으로 진인께서 도덕진리로 만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이니, 인천시에서 36天의 천운으로 단군자손들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 시작하였으니 이 신비하고 묘묘한 신부지(神不知) 용화세상의 이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 미륵부처님 용화세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나 사는 것이 아니며, 구세주 미륵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는 종교를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미륵부처님 일월도덕진리를 알지 못하여 인연이 없다면 기도를 한들 성취가 어려울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여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건만 앞날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운이 다한 말세종교의 말만 알아듣고 편하여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창주주 천지님께서 대자연의 절후 속에서 원형이정으로 만물을 생성하여 살리시듯이 후천 용

화세상을 창조하시는 미륵부처님께서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호지심(守護之心)을 배합하여 운행하는 금강도덕법립성탄절을 정명하고 건운곤복(乾運坤福)으로 만중생을 먹고 입혀 살리시고자 법고를 울리고 계시니, 오만대운의 새로운 성운으로 태양같이 떠오르는 구세주 미륵부처님 인연을 찾아, 칠대 조상부모님을 이고득락케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내 영혼을 구하며 어두웠던 자손들의 앞길을 밝게 열어 곤난과 시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안 내 -
- 일 시 : 개도법립 5019년 5월 19일(양 2002. 6. 29) 오전 10시
 - 장 소 : 미륵대도 총무원(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
 - 전 화 : 032-832-0626 / 팩스 : 032-831-8967
 - 주 최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총무원
 - 후 원 : 대도문화재단, (사)미륵종교협의회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

彌勒大道金剛蓮華宗